

〈번역논문〉

## 唐代的 키타이족 = 大賀氏 키타이 - 플랫폼리<sup>1)</sup> 대립의 시기\*

愛宕松男 著

임슬기<sup>\*\*</sup> 역

〈목차〉

- I. 李姓 키타이와 孫姓 키타이
- II. 李姓 키타이의 편성 - 소위 松漠都督府의 8부에 대하여
- III. 大賀氏 키타이

\* 이 글은 愛宕松男, 『契丹古代史の研究』, 東洋史研究會(京都大學文學部 內), 1959의 제3편 제3장 「唐代に於けるキタイ族=大賀氏キタイ - フラトリー對立の時期」, 196~240쪽을 번역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역자주] 저자 愛宕松男은 확정된 영토에서 통일의식으로 결합된 地緣집단과 대조하여 '종족(tribe)' 용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플랫폼리(phratry, 半族)·'氏族(sib)·'결합가족(joint family)' 등의 용어로 血緣사회의 각 단위집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원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사용된 플랫폼리는 당으로부터 李姓과 孫姓을 사여받은 거란족의 수장 및 그 가족이 이끄는 여러 씨족의 느슨한(즉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결합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플랫폼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에도 조금씩 설명되어 있다. 예컨대 “두 성의 한쪽인 李姓 키타이가 키타이족을 양분하는 半部族=플랫폼리에 확실히 대응한다”, “키타이종족을 구성하는 2개의 플랫폼리는 그 반쪽은 아직 가정의 단계라고 해도 일단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二分體制의 전형적인 현상인 상호간의 족의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랫폼리는 원래 결합도가 극히 느슨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이다. 부족과 씨족의 중간에 개재하는 結節이라고 하는 해도 혈연집단이라는 본질에서 보면 씨족과 같은 차원의 것이고 따라서 부족과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플랫폼리가 이성 키타이에서만 변칙적으로

## I. 李姓 키타이와 孫姓 키타이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대의 키타이족은 李姓에 속한 한 집단과 孫姓에 속한 한 집단이 병존하였다. 그 중 이성 키타이의 기원은 매우 명료하다. 『舊唐書』·『新唐書』 契丹傳에 일치하여 전하듯이 그것은 太宗 貞觀 22년(648) 그 所部를 들어 당에 내부해 온 키타이족 대수령 窟哥에게 주어진 당의 國姓이다. 내속해 온 外民族의 수령에게 국성을 수여하는 것은 官爵을 賜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순에 보답한 恩典이며 동시에 羈靡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奚族의 주장 可度者와 靺鞨族의 수령 突地稽 이하의 경우와 똑같이 당은 키타이족의 酋帥인 굴가에게 이성을 사여함에 따라 그 일족 자손은 이성으로 칭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동일하게 종주국인 당 왕조로부터 받은 은총의 상징이라고는 해도 관작과 국성은 큰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관작은 비록 세습이 허용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사여라는 단일성에 그침에 반해, 국성 사여는 반드시 그러한 제한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씨의 본질에서 보면 국성 사여는 개인을 넘어선 적용범위를 당연한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松漠都督이라는 관직은 이굴가가 살아있는 한 그 형제전 아들들이건 누구도 그것을 칭할 수 없었다.<sup>2)</sup> 이에 반해 동일한 은총의 표식인 국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훨씬 개방적이어서 복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자가 공권력과 관계된 성질의 것임에 반해 후자는 씨족제와 연관되

‘정치적 통일체’라는 부족의 本領을 발휘한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등이다.

2) 물론 이 近親者들은 혹은 동시에 羈靡州의 자사나 그 외의 관직을 수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송막도독과는 다른 관직이어야 했다.

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자인 굴가를 통해 사여된 당의 국성=이성은 굴가 개인이 아닌 그 무리에게 개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개방적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의미는 아니다. 키타이족의 누구든 일률적으로 이성이라고 칭해졌다면 그것은 단지 키타이 공동체의 사회원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적 관행에서의 성씨의 본질도 이미 벗어난 것이다. 아마도 키타이족은 후세에 통합되어 하나의 부족을 결성하는 것처럼 단일한 혈연을 이루었다는 것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범위, 즉 두 개의 플랫트리로 구성된 二分體制가 그 사회조직의 근간을 이룬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 이성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한 개의 플랫트리어며 최소한이라면 한 개 종족(즉 결합가족)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성 키타이를 논할 때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이 간단하였지만, 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정확한 적합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실은 자못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중국 성씨는 ‘五服之親’에 속한 혈연자 간의 의무관계<sup>3)</sup>를 長幼의 순서에 따라 계층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또 최대한의 기능이기도 하였지만,<sup>4)</sup> 씨족제가 견고한 키타이

3) 권리·의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엄격한 가부장제 가족에는 존재할 수 없다.

4) 중국의 姓·氏도 발생적으로는 플랫트리 혹은 씨족으로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후세에 성씨가 혼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宗族=결합가족이 되어 버렸다. 이 점은 단순히 蕃姓의 혼입·이민족의 중국 성 모칭이라는 외적 계기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본래 씨족 사회의 의미가 소멸되었다는 내적 원인이 기본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비록 이 경우에도 동성불혼 관습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성·씨의 本來(기능)을 약하게 금지한 것이겠지만, 이 관행 때문에 후세의 성씨는 본래 씨족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개 거기에 이미 鄭樵의 『通志』 권25, 氏族略1에서도 언급하듯이 ‘…… 氏同姓不同者. 婚姻可通. 姓同氏不同者. 婚姻不可通. ……’ 씨가 전적으로 종족의 종류라 할지라도 씨족의 본질을 지니지 않음에 따라서 족외혼의 단위에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포함하여 여전히 동성(=동씨) 불혼의 관행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 제도는 단순한 형태의 족외혼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채용할 필요도 없고 또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성 사여에 수반된 이성 채용이 이루어져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고 따라서 기록상 이성 키타이의 범위를 추적하는 것은 자연히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금 어떤 키타이인이 이성을 칭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그는 물론 중국 성씨의 본질적 차원에서 이를 행사할 리가 없다. 아마도 그들 사이의 씨족제에서는 혈연자 즉 씨족·플랫트리 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평등한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五服之親’ 등이라는 특정한 범위를 다시 그 사이에 설정할 필요가 없고 또 단지 연장자에 대한 의무만을 증점적으로 명하는 규범 등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성을 칭하는 이 키타이인은 반드시 그것을 씨족 또는 플랫트리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행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 이성 등을 일부러 칭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고 이 점에서 이성은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 키타이인의 대다수는 그러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이성을 채택하려면 채택할 수 있는 키타이인의 대부분이 앞의 이유로 인해 채택하지 않았다면, 문헌에 전하는 이성 키타이의 실제 사례는 전적으로 한정된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고, 더구나 그러한 기록의 몇 분의 일만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 문헌 操作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이 자칫하면 키타이족에서의 이성의 실태를 특수한 가족의 전유물인 것과 같은 형태로 도출할 우려는 이에 이르러 충분히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당서』 사서에 전하는 이성 키타이의 사례는 열 개가 넘고<sup>5)</sup> 단순히 이 숫자만으로 말한다면 어쩌면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개별 사료에 지나지 않으며 겨우 이글가 일

[exogamy]이 아니며 성씨도 역시 혈연[sib]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족 몇 명에 있어서만 그 소속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성 키타이라는 것은 흡사 이굴가 일족의 專稱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성을 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하지 않는<sup>6)</sup> 키타이인이 이보다 몇 배나 많이 전하고 있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7)</sup>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에 보이는 이들 열 몇 개의 이성 키타이 사례로부터 그것이 과연 종족에만 한정된 것

5) 이성 키타이의 개개별 사례를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역자주: 원서의 표기에 맞춰 표로 정리하였다].

이름	당이 수여한 관직 혹은 거란에서의 지위	출 전
李窟哥	初代 松漠都督	『구당서』·『신당서』 契丹傳·『冊府元龜』 권995·『通鑑』 권199
李枯莫離	歸順王·彈汗州刺史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4
李盡忠	3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7·973·977·986·『통감』
李失活	4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4·999·『통감』 211
李娑固	5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7·971·973~4·999·『唐會要』 96
李鬱于	6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4·967·975·979
李吐于	7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
李邵固	8대 송막도독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책부원구』 964·967·971·975·979·999·『자치통감』 213·『당회요』 96
李過折	開元時代 兵馬官	『구당서』·『신당서』·『책부원구』 964·『자치통감』 214
李遇折	위와 같음	『구당서』·『신당서』·『책부원구』 986
李承嗣	開元時代 大首領	『책부원구』 975
李潤池	위와 같음	『책부원구』 957
李潤	위와 같음	『책부원구』 971
李可與	後晉時代 宮苑使	『책부원구』 980
李贊華	東丹王	『책부원구』 980·997·998·1000·『五代會要』 27

6) 적어도 문헌상에는 이성으로 칭해지지 않는다.

7) 예컨대 이굴가 일족이면서도 이성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키타이 名字만으로 기록된 사례가 적지 않는 것이다.

인지 아니면 플랫폼리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된 것인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李失活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실활은 武則天 萬歲通天 원년(696)에 발발한 제3대 송막도독 李盡忠(즉 이굴가의 손자)의 반란이 격파된 결과 돌궐로 달아난 키타이족이 동돌궐 제국의 쇠퇴에 따라 현종 개원 4년(715)<sup>8)</sup> 다시 당에 내부할 때 수령이었으며 제4대 송막도독을 襲職하였다. 이실활의 世系에 대해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에서는 모두 이진충의 從父弟라고 하지만, 이 중 부제라는 친속관계는 중국의 친속조직과 같이 엄밀한 의미가 아님에 먼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당서』 거란전에

이굴가는 두 명의 손자가 있었다. 한 명은 枯莫離로 左衛將軍·彈汗州刺史가 되고 歸順郡王에 봉해졌다. 또 한 명은 盡忠으로 武衛大將軍·松漠都督이다.<sup>9)</sup>

라고 보이듯이 이굴가에게는 직계 자손이 2명밖에 없었으므로 이실활 이하 同輩行者 5명은 이진충에 대해 문자 그대로 同祖兄弟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가계도 참조). 여기서 소위 從父(兄)弟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분류식 친속조직에 통용되는 친속 호칭인 ‘형제’(=동배행자 형제), 즉 동일 조상의 자손 등의 사이에서 輩行이 같은 사람 일반에게 들어맞는 칭호에 다름 아니다. 이굴가에 대한 이실활의 관계를 그와 같이 확인해 두고<sup>10)</sup> 이실활의 소속 씨족을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 이 곤란한 문제의 단서가 되

8) 이실활이 동돌궐을 등지고 당에 내속한 년도에 대하여 『신당서』 거란전에는 개원 2년, 『구당서』에서는 3년으로 전한다. 돌궐 默綴 가한이 拔曳固를 치다가 패배함에 따라 제국의 와해가 시작된 연월을 참조하여 『자치통감』 4년설에 따른다.

9) [역자주] 『신당서』 권219, 北狄, 契丹傳, 中華書局, 616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中, 동북아역사재단, 2011, 641~642쪽.

10) 손자라고 해도 직계 손자가 아닌 손자 등급에 있는 자 일반 중의 1인이라는 의미이다.



라고 보이는 失活部(中世音 Siēt-ɾuat)가 곧 그것이다.<sup>11)</sup> 이 씨족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듯이 원래 이성 키타이의 주력 씨족이었지만 그 수령 이골가가 송막도독에 임명됨과 함께 本枝에서 분화되어 각각 大失活部(= 乙失革部)와 小失活部(= 析紇便部)를 칭한 내력을 가진 씨족이다. 그것은 또한 蜀活部(中世音 zjwét-ɾuat)라고도 하고(『曲江文集』 권8), 實活部(部?)(中世音 d'z(jët-ɾuat)라는 글자로도 보이는데(『漢高祖實錄』), 이 씨족명이 이실활의 小名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래 토템의 본질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름이고 다음은 휘장이다”<sup>12)</sup> 라는 것에서 씨족명이라는 것은 그 성원 이외에 의해 冒稱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씨족명은 저절로 씨족권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小名(개인 이름)만 있고 가족 이름(family name)을 가지지 않는 미개인(= 이로쿼이인)<sup>13)</sup> 사이에서는 “그 개인 이름은 동일 가족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지시하는 바가 없지만, 소속 씨족에 대해서는 이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sup>14)</sup> 는 것이다. 동아시아 북방의 여러 종족에 대하여 이 원칙이 완전히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씨족성원이 그 씨족명을 자기 개인

11) 『신당서』 지리지에서 동일한 신주를 설명하여 “信州. 萬歲通天元年, 以乙失活部落置”라고 하여 을실활부의 기미주라 하였지만 이는 오기이다. 대개 을실활부에 대해 『신당서』에 간단히 첫 설치를 설명한 이외에 - 이 설명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을 다음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 이후의 연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기록이 있어, 『구당서』에서 이에 반대되는 상세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주는 정관 19년 營州 내에 설치하여 거란 乙失革부락을 두었고, 營州都督에 예속시켰다. 萬歲通天 원년 靑州에 옮겨 안치하였다. 神龍 초 되돌려 幽州都督에 예속시켰다.’ 즉 신주와 대주가 무릇 별개의 2개 기미주로 있다는 것이지만 만세통천 원년 이진충 반란 후의 연혁과 유사하고 특히 失活部·乙失活部라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양자가 혼동되어 『신당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 틀림없다.

12) Durkheim E.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ch. II.

13) [역자주] 북아메리카 뉴욕 북부의 5개 부족 연맹인 Iroquois Confederacy를 말한다.

14) Morgan L.H., *Ancient society*. part II. ch. II



이름의 일부로 삼는 사례는 결코 적지 않다. 『元朝祕史』를 살펴보면 乞顏(Kiyan) 씨족을 구성하는 合不勒(Kabul Khayan)의 자손 등에서는 예컨대 칭기즈 칸의 백부에 해당하는 忙格禿乞顏(Möngetü Kiyan)이 있고 또 그 부친인 也速該乞顏(Yesügei Kiyan)도 그 한 예가 된다. 물론 열 명이면 열 명 모두 이 사례와 같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있어서도 다른 씨족의 명칭을 개인 이름으로 삼는 사례만큼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반복하여 말하면 어떤 성원이 그 개인 이름 가운데 자기가 속한 씨족명을 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도<sup>15)</sup> 진실로 그것(즉 씨족명)을 개인 이름 안에 칭하는 한 그 성원과 씨족의 관계는 불가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이실활의 소속 씨족은 저절로 판명될 것이다.

태종 정관 22년(648) 내속한 공을 평가받아 乙失革 씨족의 수령 𪎭가<sup>16)</sup>가 사여받은 당의 국성 즉 이성은 𪎭가의 자손에 의해 행사된 것은 물론 그 이외의 씨족인 失活 씨족도 모칭한 것, 또 이들 두 씨족은 일단 별개의 씨족이기는 해도 더구나 시조가 같은 형제씨족이었던 것,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한 이상 지금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성 키타이의 범위를, 단순히 종족도 물론 아니고 또 일개 씨족도 아닌 실로 하나의 플랫폼리 전체였다고 단정하겠다.

이성 키타이의 범위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에 비해 손성 키타이의 경우는 그 고증이 매우 어렵다. 먼저 무엇보다도 관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근소한 5가지 사례 중에서도 계보 관계가 서술되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즉

孫傲曹 - ( ) - 孫萬榮(『신당서』에 의거. 『구당서』에는 증손이라 함.)

15) 이 경우 그는 씨족명을 칭하려고 하면 칭할 수 있었지만, 단지 칭하지 않았을 뿐이다.

16) 𪎭가가 을실혁씨족에 속하였다는 것은 다음 절에서 논증하겠다.

라고 보이는 것인데, 이에 더해 손성의 유래도 이성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는다. 『구당서』 거란전에 의하면 이굴가의 송막도독 授官과 그 손자 枯莫離(『신당서』에 의거하여 증손을 손자로 고침)의 授爵 기사에 이어서

또한 거란에 別部 酋帥 孫傲曹가 있었다. 처음에 隋에 출사하여 金紫光祿大夫가 되었다. 武德 4년 靺鞨 추장 突地稽와 함께 사자를 보내어 內附하자 조서를 내려 營州城傍에 안치시키고 雲麾將軍·行遼州總管을 제수하였다.<sup>17)</sup>

하고 하는데, 손성 키타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무덕 4년(621) 손오조가 요주총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기미주인 威州를 설명하는 지리지 기사와 연계된다. 즉

무덕 2년에 요주총관을 설치하고, 그들을 燕支城에서 영주성 안으로 寄治시켰다. 7년 총관부를 폐지하였다. 정관 원년 위주로 고쳤다. 거느린 戶는 거란 內稽部落이다. 幽州大都督에 예속시켰다.<sup>18)</sup>

라고 한다. 요주총관에 임관된 연도에 대해서는 무덕 2년 혹은 4년이라는 불일치가 지리지와 거란전 사이에 보이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또 이하는지와 관련된 바도 없으므로 잠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상의 기록으로 손오조가 내계씨족의 수령이었고 일찍이 수 왕조에도 내

17) [역자주] 『구당서』 권199, 북적전 거란, 5350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2011, 674~675쪽.

18)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威州 조, 1522쪽, “武德二年, 置遼州總管, 自燕支城徙寄治營州城內. 七年, 廢總管府. 貞觀元年, 改爲威州, 隸幽州大都督. 所領戶, 契丹內稽部落.” [역자주] 원문은 중화서국본을 따르되 교감은 愛宕松男의 것을 따랐다.

속되어 건국 초의 당 왕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 손오조의 손자가 바로 이성 키타이의 總帥이고, 또 제3대 송막도독이 된 이진충과 협력하면서 만세통천 원년(696)의 대반란을 일으킨 손만영인데, 그 관직은 무축천 垂拱 초년에 右玉鈴將軍·歸誠州刺史·永樂縣公이었다고 한다. 오직 이것이 손성 키타이에 대하여 알려진 대략이다.

그런데 이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손성의 유래는 추측을 해도 그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 무덕 4년 손오조의 내속을 기록하여 『신당서』가 이미 손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혹은 그 기원은 수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후대의 追稱이라는 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sup>19)</sup>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당대의 손성 키타이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지금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손성 기원의 문제가 반드시 그 해결을 요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손오조가 이끈 집단이 과연 내계씨족 한 집단에 그친 것인지 아닌지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가 수 왕조에 내부하여 金紫光祿大夫를 수여받은 것이고, 둘째는 당에 귀속하여 遼州總管·雲鷹將軍에 배수된 것이다. 내속한 이민족 수령에게 주어진 관작이 아무리 명목적인 것이라고 해도 종2품의 금자광록대부는 손오조의 세력을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특히 개황 4년 5월 모든 莫賀弗(Bayatur)을 이끌고 입조한 키타이족 플랫폼리의 수령이 손오조에 대한 것과 대략 동등한 정3품 대장군

19) 실제 李去闇의 경우가 그 좋은 사례이다. 아마도 이성 키타이의 유래는 정관 22년 굴가에 대한 국성 사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한 점의 의문도 없으므로 수대 키타이 족에 이성이 존재했을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皇 4년의 날짜로써 『신당서』 지리지에(『隋書』에는 참으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이성 키타이를 말하지는 않음) 거란 酋帥 이거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훗날의 추정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에 배수하였다는 사실(『수서』 본기)을 서로 대조하면 관직의 균형으로 말해도 손오조가 이끈 집단이 단순한 하나의 씨족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는 당으로부터 종3품 散官인 운휘장군과 함께 요주총관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이 총관은 『신당서』 권49하 백관지에 의하면

무덕 초에 邊要의 땅에 총관을 설치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고 使持節의 호칭을 더하였는데 무릇 漢 刺史의 직임이다. …… 7년 총관을 都督으로 바꾸었는데 10주를 총괄하는 경우는 대도독으로 삼았다. 정관 2년 대자를 없앴다. ……<sup>20)</sup>

라고 하여 후대 도독의 전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성 키타이의 총수인 이굴가와 대등한 관직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구당서』·『신당서』 거란전에 의하면 8부를 통솔한 플랫폼리의 수령 이굴가는 정관 22년의 복속에 의해 종3품 左衛將軍을 수여받음과 동시에 송막도독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손오조가 수·당 두 왕조로부터 받은 관직을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모두 플랫폼리의 대표자라는 동등한 자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마치 이 결과에 우연히 일치하는 듯한 기록이 『신당서』에 보인다. 즉

무덕 연간 중 그 大酋 손오조가 말갈 수장 突地稽와 함께 사람을 보내 內朝하였다. 그러나 군장들[君長]이 혹은 소규모로 변경을 침략하였다. ……<sup>21)</sup>

라고 한다. 매우 애매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오조의 指令이 內稽라는 한 部 밖에까지 미쳤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군장들이 혹

20) [역자주] 『신당서』 권49하, 백관지4하, 下都督府 조, 1315~1316쪽.

21) [역자주] 『신당서』 권219, 거란전, 616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신당서 외국전 역주』 中, 639쪽.

은 소규모로 변경을 침략하였다”라고 한 구절은 아마도 편안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해해야만 그 손자에 해당하는 손만영이 동시대 이성 키타이의 총수인 이진충과 호응하여 그 모든 키타이 종족을 동원한 대반란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경위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키타이종족에게 인식된 중국 성은 오직 이성과 손성 두 개 뿐으로 적어도 문헌상에는 제3의 중국 성은 전하지 않은 점, 또 그 계보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고 해도 손성 키타이의 존재는 개원 6년(718) 내항한 키타이인 孫骨納(혹은 訥)<sup>22)</sup> 과 廣順 2년(952)의 孫重勳·孫章<sup>23)</sup> 등에 의해 당에서 오대에 걸쳐 흔적을 남겼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두 성의 한쪽인 이성 키타이가 키타이족을 이분하는 半部族=플랫트리에 확실히 대응한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을 기반으로 일단 손성 키타이 역시 플랫트리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키타이종족을 구성하는 2개의 플랫트리는 그 반쪽은 아직 가정의 단계라고 해도 일단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二分體制의 전형적인 현상인 상호간의 족외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앞의 가정은 일변하여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기록을 찾아보면 다행스럽게도 귀중하고 유일한 적합 사례가 보인다. 즉 『신당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당서』 거란전에는 이진충·손만영의 반란 기사 첫머리에 양자의 인척관계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22) 『책부원구』 권974, 外夷部19, 褒異2, 개원 6년 6월 조, 鳳凰出版社(원래는 江蘇古籍出版社), 11277쪽; 『책부원구』 권977, 外夷部22, 降附, 개원 6년 5월 조, 11312쪽.

23) 『책부원구』 권977, 外夷部22, 降附, 광순 2년 6월 조, 11314쪽; 『책부원구』 권977, 外夷部22, 降附, 광순 2년 11월 조, 11314쪽.

만세통천 연간에 손만영과 王 妹婿 송막도독 이진충이 함께 영주도독 張 翽에게 侵侮당하자 .....<sup>24)</sup>

그런데 이 기록은 중요한 부분에 오자일지도 모르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 즉 ‘王姪婿’ 3글자가 그것으로 『자치통감』은 王자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진충은 손만영의 妹夫이다.<sup>25)</sup>

라고 단언한다. 아마 『자치통감』도 별도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장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통하기 어려웠기 때문 改訂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26)</sup> 궁극적으로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왕 자는 문맥상 衍字가 아니고 其 자의 오자가 틀림없기 때문이다. 만약 왕 자를 살린다면 ‘王의 姪婿’가 아니고 ‘[松漠郡]王인 妹婿’라고 읽으면 약간의 어색함은 있어도 그대로 의미가 통할 수 있다. 다만 이진충이 송막군왕에 봉해졌다고 하는 기록은 사서들에 보이지 않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진충이 송막도독에 임명되었던 무후 시대에 송막도독부 관하의 彈汗州刺史에 배수된 李枯 莫離(즉 이진충의 종형제)가 歸順郡王에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독인 그에게 王爵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고, 게다가 그를 이은 제4

24) 『구당서』 권199, 거란전, 5350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 역주』 下, 674~675쪽, “萬歲通天中, 萬榮與其妹婿松漠都督李盡忠, 俱爲營州都督趙翽所侵侮, 二人遂舉兵殺翽, 據營州作亂”. [역자주] 저자는 ‘其’ 자를 ‘王’으로 해석하였다. 저자가 인용한 원전에 ‘왕’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자가 ‘기’를 ‘왕’으로 해석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각주의 원문은 중화서국본을 적되 본문의 문장은 저자의 해석에 따라옴을 밝힌다.

25) [역자주] 『자치통감』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조, 中華書局, 6505쪽.

26) 『資治通鑑考異』에도 이 개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없다.

대 송막도독 이실할 이하는 대대로 ‘송막군왕’을 세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진충의 왕작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앞의 난해한 세 글자, 특히 왕 자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진충의 처가 손만영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은 비록 겨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 간의 혼인관계를 전면적이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馬 플랫폼리(Jala-ga)와 牛 플랫폼리(Šar-nut) 간 상호 족외혼은 遼 제국이라는 키타이국가가 성립한 10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도 소멸하지 않은 견고한 키타이족의 관습이었다. 많은 적든 순수한 씨족제가 파괴된 이후 시대에 있어서조차 그와 같았던 이상, 씨족제가 아직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7세기 말의 키타이족 사회에서 이 혼인형식의 예외 등은 있을 수 없다. 이성 키타이가 확실히 플랫폼리였다면 플랫폼리를 단위로 하는 족외혼 제도에 있어서 이와 통혼한 손성 키타이 또한 당연히 플랫폼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수당시대 엄밀하게는 당대에 이르러서라고 해야겠지만, 처음으로 史籍에 나타나는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를 들어 이것이 각각 플랫폼리에 대응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상과 같이 논증하였다. 따라서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양자를 어느 것이 馬 플랫폼리에 해당하고 어느 것이 牛 플랫폼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그 준비로서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의 구성내용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 II. 李姓 키타이의 편성 — 소위 松漠都督府의 8부에 대하여

키타이족의 구체적인 내부편성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隋書』 거란전(『北史』 거란전)이다. ‘十部 거란’ 즉 10개 집단으로 성립되었다는 이 說

은 그 각각이 同列에 위치하는 집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한 이 10부가 당시 키타이족의 내부집단을 모두 말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알려진 한정적 숫자만을 말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 ‘10부 키타이’라는 映像은 자못 모호함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키타이종족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의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확실한 내부집단의 實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당서』 기록은 자못 귀중한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 말한 『신당서』의 기록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관 22년(648)의 송막도독부 설치에 수반한 이성 키타이의 8개 구분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신당서』 거란전에 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굴가가 部를 들어 來屬하자 송막도독부를 설치하여 굴가를 使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으로 삼고 無極男에 봉하며 이씨 성을 하사하였다. 達稽部를 峭落州로 삼고, 紇便部를 彈汗州로 삼고, 獨活部를 無逢州로 삼고, 芬間部를 弱陵州로 삼고, 突便部를 日連州로 삼고, 芮奚部를 徙河州로 삼고, 墜斤部를 萬丹州로 삼고, 伏部를 匹黎·赤山 2주로 하여 모두 송막부에 예속시키고 즉 辱紇主를 刺史로 삼았다.<sup>27)</sup>

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휘하의 모든 집단을 이끌고 내속해 온 이굴가는 새롭게 수여된 당의 관직인 송막도독의 명호 아래 達稽·紇便·獨活·芬間·突便·芮奚·墜斤·伏部라는 8씨족집단=9주를 통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使持節十州諸軍事’라는 칭호에 대해 아직 1주가 부족하고 특히 그 자신이 직접 통솔하는 本部集團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족한 1주만을 보충하면 혹 도독부를 계산하여 넣음으

27) [역자주] 『신당서』 권219 북적전 거란, 616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신당서 외국전 역주』中, 640쪽.



로써 일단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울러 그 부족한 굴가의 本部는 그러한 이해만으로는 미완으로 남는다. 8부 이성 키타이에 관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무라 지쓰오(田村實造)는 紇便部の 분석으로 답하였다.<sup>28)</sup> 즉 『신당서』 권43하, 지리지에 彈汗州(흘편부)의 후신인 歸順州·歸化郡을 설명하여

歸順州·歸化郡本彈汗州，貞觀二十二年，以來屬契丹別帥析紇便部置。開元四年更名。<sup>29)</sup>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를 “內屬한 契丹의 別帥로써 紇便部를 나누어 [彈汗州를] 설치하였다”라고 해석하고, 나누어진 2개 집단이 된 흘편부의 하나를 탄한주, 다른 하나를 굴가의 본부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책부원귀』 권977에 보이는 송막도독부 설치와 관한 異文에 대해서도

정관 22년 11월 거란 우두머리 굴가와 해 우두머리 可度者가 함께 그 部를 이끌고 내속하자 거란 部를 송막도독부로 삼고 굴가를 使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로 배수하였다. 또 別帥 達稽部로 峭落州를, 祈紇使部로 彈汗州를, 獨活部로 無逢州, 芬間部로 弱凌州, 突使部로 日連州, 芮奚部로 徙河州, 遂斤部로 萬丹州를, 伏部로 匹黎·亦山 2주를 설치하고, 각각 그 酋長 辱紇主를 자사로 삼고 모두 송막에 예속시켰다.<sup>30)</sup>

28) 田村實造, 「唐代に於ける契丹族の研究 -特に開國傳説の成立と八部組織に就いて-, 『滿蒙史論叢』 1, 1938. 덧붙여 송막도독부 아래 8부에 관련하여 『신당서』 지리지의 기록 - 여기에는 송막부의 편성을 同書 거란전과 비교하면 탄한주·흘편부를 제외한 7부 8주로 기록되어 있다 - 에 기반하여 흘편부(탄한주)는 본래의 그 구성원에 없었다는 마츠이 토오루(松井等) 교수의 異說이 있다. 이 설이 성립되지 않는 점은 타무라 박사가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본절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9) 『역주』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河北道, 歸順州·歸化郡 조, 1127쪽.

라고 할 때의 “又以別帥祈紘使部置殫汗州”에 대해 ‘祈紘使’ 3글자를 ‘祈紘使’의 오자로 간주하여 “또 別帥로써 紘使部를 나누어 殫汗州를 설치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앞의 『신당서』 지리지 기사에 호응시켰다.

이성 키타이를 구성하는 8부 가운데 어느 한 부(여기에서는 흘편부)가 나누어져 2개가 된다고 할 때 하나는 이글가가 직할하는 본부가 되고, 다른 하나는 8부 중 한 부가 되었다는 이 견해는 확실히 뛰어난 탁견이다. 나 또한 대국적으로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그 세부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즉 나는 ‘흘편부’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祈紘部’가 나누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하에서 언급하겠다.

당 왕조에 내속한 키타이족의 각 집단은 각각 집단별로 기미주로서 안치되었다. 이 기미주(송막도독부 및 그 관하 10주도 그 하나임)가 『구당서』·『신당서』 지리지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帶州가 있다. 『구당서』의 설명에 의하면 대주는 정관 19년(645) 乙失革部로 영주도독부 아래에 建置되었다.<sup>31)</sup>

대주는 정관 19년 營州 경내에 설치하여 거란 乙失革부락을 두고 營州都督에 예속시켰다. 萬歲通天 원년 靑州에 옮겨 안치하였다. 神龍 초 되돌려 幽州都督에 예속시켰다.<sup>32)</sup>

30) [역자주] 『책부원구』 권977, 外夷部22, 降附, 정관 22년 11월 조, 鳳凰出版社(原江蘇古籍出版社), 11311쪽.

31) 『신당서』 지리지는 대주의 설치를 정관 10년으로 기록하였는데, 『구당서』 지리지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적어도 거란 기미주와 관련한 한계로 후자와 비교하면 심한 杜撰이 있다. 일례로 전자를 들자면 玄州의 경우 辱紘主를 紘主로 기록하였고, 설치년도인 정관 22년을 정관 20년으로 오기하였다. 또 失活部와 乙失革部를 혼합하여 전자의 주인 信州를 후자의 것이라고 한 결과, 을실혁부 본래의 주인 대주를 중복하여 기록을 남기는 등 신빙성이 결핍되어 있다. 『구당서』 지리지에 의거하는 까닭이다.

32) [역자주]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帶州 조, 1524쪽.

이 대주 을실혁부는 『구당서』·『신당서』·『책부원귀』에 송막도독부 관하의 일원으로서는 보이지지 않는 점을 먼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을실혁부(중세음 Iət-siēt-kæk)란 소위 遙輦氏 8부로 칭해지는 당말오대의 8부 키타이 안에 있는 乙失活部에 다름 아니며, 또한 요대의 유명한 乙室巳部 또는 乙室部여서 제1편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이것이야말로 審密姓 즉 牛 플랫폼리(Sar-mut) 중에서도 필두로 거론되는 집단으로 이것이 그 안에 참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집단의 귀속을 결정하는 최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송막도독부 관하의 8부 10주 중에 대주 을실혁부가 편입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송막도독부 계통의 집단들은 후세의 耶律姓 즉 馬 플랫폼리(Jala-ga)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 키타이인 송막부의 8부 중에는 失活 씨족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sup>33)</sup> 제4대 송막도독의 지위를 계승한

33) [역자주] 원문 3장 2절의 말미에는 각주 3이 수록되어 있으나 정작 본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부득이하게 본문의 해당 문장에 각주 3의 내용이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표기하였다. 아울러 각주 3의 내용은 원래 각주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 표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失活은 蜀活(『曲江集』)·實活(『漢高祖實錄』)로도 전사되었다. 이들의 음가를 중세음과 현재음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失活	Siēt ɣuat	Shih hu
蜀活	Zi <sup>w</sup> ok ɣuat	Shu hu
實活	d'ziēt ɣuat	Shih hu
Še-ɣu[at] < Šeu[at]	Šou[at]	
Zo-ɣu[at] < Zeu[at]		
dze-ɣu[at] < dzeu[at]		

실활의 字面에서 필사된 원어는 Šou[at]=Si-hu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收里Siəu lji < šau-li, 현재음 shou-li는 명사의 어미인 lik를 붙여 만든 집합 명사의 형태로 해석한다면 šo-li[k] - 어미의 k가 생략된 것은 Melik을 滅里로, Al-malik을 阿里馬里에 음사한 사례로 명확한 것이다. -失活과 收里와의 동음관계는 요약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것이 다름 아닌 이 집단의 대표자인 이실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실활부라는 것은 이른바 요런씨 키타이의 8부 중에서도 實活部라는 글자로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집단인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요대에는 收里(=述律)씨라는 명칭으로 乙失氏와 병칭되어 審密 플랫폼리를 형성하는 두 大宗 중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송막부 계통의 8부는 牛 플랫폼리(Šar-mut)에 속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송막도독부 계통의 이성 키타이라는 것은 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의문은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간단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집단에게 馬 플랫폼리의 낙인을 찍은 것은 송막도독부의 10주8부 중에는 대주 을실혁부가 “만약 정말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牛 플랫폼리의 구성분자인 실활부가 이성 키타이의 중요 성원이었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의 결론(馬 플랫폼리論)은 새로운 결론(牛 플랫폼리설)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결론으로서 대주 을실혁부가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그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여 송막도독의 10주8부 안에 자리 잡을 장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을실혁부 대주가 송막도독부 관하의 일원이고 게다가 이것이야말로 도독 이굴가가 직할하는 本部였다는 것은 그 설치연혁을 통해 암암리이기는 해도 말해져 왔다. 즉 대주의 설치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정관 19년(645)이었다. 그 사정을 『신당서』 거란전을 근거로 살펴보면<sup>34)</sup> 다음과 같다.

황제(즉 태종)가 高麗를 토벌할 때 [거란] 酋長과 奚의 首領을 모두 징발하여 종군시켰다. 황제가 귀환하며 營州를 지날 때 그 추장 굴가와 老人을 모두 불러 繒采를 차등있게 하사하고 굴가를 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 얼마 지

34) 『구당서』·『신당서』의 기록에는 큰 차이가 없다.

나지 않아 굴가가 部를 들어 內屬하였으므로 송막도독부를 설치하였다. ...<sup>35)</sup>

즉 정관 22년에 부를 들어 내속하기<sup>36)</sup> 전에 굴가는 먼저 태종의 부름에 응하여 영주에 入謁하였던 것이다. 이 영주로의 입알은 태종의 고구려 친정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정관 19년 10월이어야 한다.<sup>37)</sup> 따라서 그는 이 19년 10월 입알함에 따라 좌무위장군에 제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授官과 동시에 기미주가 설치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론 이 授官에 수반한 대주 설치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상 함부로 양자의 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굴가에 대한 관직 수여와 대주 설치 연도가 일치하는 점만은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대주가 영주 경내에 설치되고 영주도독에 예속되었다는 점이다. 이 성격은 얼핏 보건대 이굴가와 대주의 관계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굴가가 임명된 송막도독부는 적어도 제도상에서는 영주도독부와 同格에 있었기 때문에 후자에 예속된 대주를 전자의 도독이 관할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피상적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도독부라고 하더라도 송막과 영주는 실로 큰 격차가 있다. 전자는 오로지 이민족을 部 內的으로 통제하게 하는 기구이고, 후자는 어디까지나 그 상위에서 그러한 내속 이민족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송막 10주의 수장(=도독)인 이굴가가 동시에 8개 씨족집단을 이끄는 이성 플랫폼리의 총수이기도 했던 만큼 영주도독의 감시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주와 멀

35) [역자주] 『신당서』 권219, 거란전, 616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신당서 외국전 역주』 중, 639~640쪽.

36) 그 결과 이굴가가 송막도독에 임명되었다.

37) 『자치통감』 권197·198에 의하면 태종은 정관 19년 4월에 幽州를 출발하여 5월에 遼水를 건너 安市城을 포위하였다는 60일을 빼지 않는다면, 遼左의 이른 추위에 대비하여 9월 癸未일에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 10월 丙午(11일)에 영주에 도착하였다.

리 떨어진 이성 키타이의 근거지에서 그 휘하 집단을 직접, 게다가 항상 지배하는 것이 경계되고, 반대로 그 자신을 근거지에서 분리시켜 영주 직할 하에 두는 것이 충분히 취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손성 키타이의 총수인 손오조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같았다. 앞에서 인용한 『구당서』 지리지에도 보이듯이 무덕 2년(619) 그가 이끄는 內稽部로 遼州가 설치되고, 그가 그 총관(=후의 도독)에 임명되자 그는 “燕支城에서 옮겨 영주성내에 치소를 두었던” 것이다.<sup>38)</sup> 연지성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계부의 故地이며 손성 키타이의 근거지였으므로 요주 설치 이후에도 많은 部衆이 거기에 머물고 다만 總管인 손오조만이 1部の 부하를 이끌고 영주성내에 총관부(명목적 官府이지만)를 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田村이 『通典』 권200에 보이는 다음 기사를 인용하고

松漠都護(督?)府를 羈縻하여 현 柳城郡에 속하도록 하였다.<sup>39)</sup>

또 만세통천 원년에 송막도독 이진충·귀성주자사 손만영<sup>40)</sup>의 반란이 營州城傍에서 봉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송막도독부가 영주성과 멀리 떨어

38) 『구당서』 거란전에서는 “城傍安置”라고 보이지만, 본거지인 연지성에서 떨어져 나와 영주도독의 직할 아래 자신을 두어야 했던 사정에는 차이가 없다.

39) 『通典』 권200, 邊防16, 北狄7, 契丹, “窟哥曾孫松漠都督 [原註: 羈縻松漠都護府屬, 今柳城郡]”(上海人民出版社, 557쪽; 中華書局, 5486쪽). [역자주] 원저에는 “羈縻松漠都護(督?)府屬令柳城郡”라 되어 있는데 해당 사료로 제시된 『通典』에 완전히 일치하는 글귀가 없다. 이에 문맥상 가장 유사한 원문을 찾아 각주로 달고, 본문 해석은 원저에 제시된 문장에 의거하였다.

40) 손만영은 무척춘 垂拱 연간 귀성주 자사에 拜하였지만(『구당서』·『신당서』 거란전) 이 귀성주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조부에 해당하는 손오조가 다스린 요주는 정관 원년 이후 威州로 개명되었다. 아마도 위주의 州治는 영주성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세통천 원년 반란 중에 손만영이 영주성방에서 기병했다는 점을 같이 생각하면 귀성주는 무후조에 위주로 개명된 것이 아닐까 상상된다. 의문점으로 남겨 둔다.

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추단한 것은 송막도독부가 이굴가의 本部=대주 을실혁부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異議 없이 이에 따른다.

적어도 송막도독이 이끄는 本部만은 영주도독의 직할 아래 있도록 요구되었던 사실은 제4대 도독 이실활의 경우로 설명하면 가장 납득하기 쉬울 것이다. 즉 이진충·손만영 반란의 결과 키타이종족은 당을 이반하여 돌궐세력 아래로 들어갔지만 이윽고 동돌궐이 쇠퇴하자 개원 4년(716)<sup>41)</sup> 다시 돌궐을 떠나 당에 귀부하였다. 이 이성 키타이의 대표자가 이실활인데, 그 내부와 동시에 그를 위해 歸順州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구당서』·『신당서』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歸順州는 개원 4년에 설치되고 거란 松漠府 彈汗州 部落을 두었다. 天寶 원년 歸化郡으로 고쳤다.<sup>42)</sup>

歸順州·歸化郡은 본래 彈汗州이다. 정관 22년 내속한 거란 別帥 析紇便部로 설치하였다. 개원 원년 이름을 바꾸었다.<sup>43)</sup>

요컨대 만세통천 원년의 반란 이전의 탄한주, 즉 지금까지 『신당서』 거란전에 따라 紇便部로 칭해지고 있는 것(그러나 이는 잘못으로 같은 책의 지리지에 위와 같이 析紇便部로 기록한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원

41) 이실활의 당으로의 내속 년도는 『신당서』 거란전에 개원 2년, 『구당서』 거란전에 3년, 『통감』에 4년으로 기록되었다. 생각컨대 개원 2년에는 薛訥이 이끄는 당의 거란 토벌군이 7월에 대패하였고, 다른 방향으로 돌궐에서도 목철가한의 威숨이 여전히 해외에 떨치고 있었다. 키타이족의 당 귀부는 ‘목철 정권이 쇠락한 결과’에 있으며, 사실 4년 6월에 목철의 敗死(『通鑑考異』12)를 계기로 동돌궐의 지배력이 약해지자 回紇·拔曳固·同羅·霽·僕固 등의 당 內降이 실현되었던 것에서 이실활의 귀복도 4년 8월에 기록된 『통감』의 기록이 대세상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2) [역자주] 『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歸順州·歸化郡 조, 1520쪽.

43) [역자주] 『신당서』 권43, 지리지7하, 하북도, 歸順州·歸化郡 조, 1127쪽.

4년 새로 설치된 것이 귀순주이므로 이 설치가 이실활의 귀부와 직접 관련된 사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개원 4년이라는 연도의 일치와 귀순주라는 州名의 상응도 그렇지만, 실활부 = 析紇部여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실활은 을실혁부가 아니라 실활부 출신이다)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이다.<sup>44)</sup> 실활부의 증세음은 Sjět-ɣuat이고 析紇部の 증세음은 Siek-kuat이므로 음성상으로도 이 양자의 異譯同體는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당에 다시 귀부한 이성 키타이의 총수 이실활의 本部인 귀순주는 동시에 당시 송막도독의 본부이기도 하였으므로(이굴가·이진충이 도독이었던 시기의 본부는 그들이 이끄는 乙失革部 帶州였지만, 지금은 반란을 거지며 이성 키타이의 총수는 그 출신집단이 달라지게 되어 실활부 출신의 이실활이 도독이 되자 그 본부는 필연적으로 실활부 귀순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법제상 이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영주도독부와 대등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송막도독부의 8주와는 별개로 더구나 幽州都督府 관하에 이 귀순주를 배열하였다. 영주도독부가 아니고 幽州大都督府 관하에 들어간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만세통천 원년의 반란으로 빠르게 키타이군에게 함락된 영주도독부는 神龍 원년(705) 이후 유주 界內로 후퇴하였다가 개원 4년(716)에 이르러 柳城의 옛 치소로 돌아갔는데,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유주대도독 관하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귀순주 즉 송막도독의 본부가 독립하여 존재한 것은 아니어서 영주든 유주

44) 타무라 박사는 『책부원귀』 권964 [역자주: 『책부원귀』 권964, 외신부9, 책봉2, 11171]에서 발견한 ‘萬歲通天二年十月. 左玉鈐衛員外將軍兼簡較汴州(檢校彈汴州?) 刺史李括莫離爲歸順王’ 기록에 의하여 ‘아마 탄한주 자사 고막리는 이진충·손만영 등을 배신하고 송막부 관하에서 이탈하여 일찍이 당에 귀부하였다는 이유로 반란평정을 기하여 귀순에 봉책되어 제수받고 개원 4년에 이르러 그 주 명칭이 귀순주로 바뀌었던 것이라 본다’고 하여 귀순주의 설치를 고막리와 관계에서 설명하였지만, 나는 이를 이실활의 복귀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한다.



든 이민족 統御의 제1선에 위치한 도독부 관하에 설치되었던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면 대주 을실혁부가 송막부와 위치적으로 분리되어 영주 도독부 관하에 있었던 사실은 그것이 송막부를 구성하는 10주8부의 일원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료가 되기는커녕 반대로 송막도독의 본부라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거로부터 대주 을실혁부는 송막도독 이굴가가 이끈 직할 본부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요컨대 정관 19년 10월 태종의 부름에 응해 영주에 입알한 이굴가는 그 때 좌부위장군에 제수됨과 동시에 그 所部로 대주(을실혁부)가 영주도독부 아래 설치됨에 따라 그 장관인 자사가 그에게 제수되었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아마도 그 기간 중에 그는 같은 이성 키타이 집단들을 설득하면서 쏘플랫트리를 들어 당에 내속할 태세를 갖추고 22년에 이르러 이를 실현한 결과 송막도독에 임명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생각건대 19년에는 을실혁부 1부의 장으로서 그가 입알한 것이므로 일반 기미주의 장관인 대주자사가 그를 대우하는 데 어울리는 것이었지만, 이제 관하 8개 집단을 이끌고 내속해 오자 이들 8개 집단 자체가 각각 한 개의 기미주가 되고 그 辱紘主가 각각 자사가 된 관계상, 이굴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한 단계 승격하지 않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된다. 여기서 송막도독부의 설치와 도독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굴가가 대주자사와 송막도독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비로소

[정관 19년 10월] 태종이 高麗를 토벌하면서 營州에 이르러 그 君長과 老人 등과 만나 …… 그 蕃長 굴가를 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22년 굴가 등 부가 모두 내속을 청하자 송막도독부를 설치하고 굴가를 使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에 제수하였다. …… 達稽部를 峭落州로 삼고 云云(이하 8부 9주의 시말이 적힘) 모두 송막부에 예속시키고 곧 辱紘主를 그 刺史로 삼았다.<sup>45)</sup>

라는 『구당서』·『신당서』의 기술(두 기록은 대동소이하므로 양자를 병행하여 채록함) 특히 “22년 굴가가 部를 들어 내속하였다”는 구절이 전후 맥락을 이어주지만, 특히 ‘使持節十州諸軍事’라 칭하면서도 열거된 기미주는 9주에 불과하다는 결함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만약 이상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면 송막부의 내용은 1府·10州·9部라는 편성이 되지만, 이 경우 1부10주라는 점은 송막도독부를 列郡의 위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使持節十州諸軍事’의 10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9부라는 숫자는 이른바 ‘大賀氏 8部’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확실히 을실혁부가 만약 나머지 8부 즉 達稽·析紇便·獨活·芮間·突便·芮奚·墜斤·伏部와 완전히 별개의 1부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나머지 8중 가운데 어느 1부에 준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각별한 불합리가 생기는 것이다.

송막도독부의 8부 중에서 彈汗州 = 紇便部(『신당서』 지리지에 따라 일단 ‘紇便部’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겠다)가 홀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초대 도독 이굴가의 두 손자인 이진충과 李枯莫離가 각각 한 명은 제3대 도독을 세습하고 다른 한 명은 탄한주자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이굴가에 의해 紇便部는 이분되어 하나는 굴가 자신이 이끌며 송막부의 本部로 삼고, 다른 것은 그 아들(즉 고막리의 부친) 또는 고막리에 주어 別部로 삼아 탄한주의 基體가 되게 하였을 것이라는 田村의 明察도 실은 이 사이의 事情으로부터 추출한 추론이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나는 이 통찰에 감히 이견을 낼 마음이 없다. 이 착상의 정확함을 인정하여 이에 따르면서 다만 분리된 집단의 명칭

45) [역자주] 『구당서』 권199, 복적, 거란전, 5350쪽; 『신당서』 권219, 복적, 거란전, 6168쪽.

을 紇便部로 보지 않고 析紇部(析紇部) Siek-kuæt = 失活部 Siĕt-ɣuat였다고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이유로 나는 지금까지 을실혁부가 송막부 계통의 집단 안에 참여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을 서술하고 또 나아가 이 을실혁부가 송막부의 본부이기도 하다는 논지를 설명해 온 것이다. 이제 이 이유를 말하며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했듯이 송막부의 8부 중에 실활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구나 그것은 단순한 병립하는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제 4대 도독(즉 이실활)을 낼 정도까지 중요한 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따라서 만약 8부의 명칭을 갖춘 名簿라면 당연히 이 실활부라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색해 보면 『신당서』 지리지의 乙失革部 즉 析紇便部(『책부원구』의 析紇使部는 田村이 말한대로 析紇便部の 잘못일 것)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部 명칭으로 용이하게 끼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을실혁부는 후세에 乙失活으로도 적혀 있고(『漢高祖實錄』) 또 乙室活(『五代史記』·『五代會要』·『東都事略』·『文獻通考』), 一室活(『契丹國志』)의 형태로 보이듯이 실활의 명칭을 그대로 안에 포섭하고 있고 한편으로 析紇便部の 경우에도 글자는 달라도 析紇(Siek-kuæt)의 자음이 그대로 失活(Siĕt-ɣuat)의 그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乙失革(乙失活)·析紇便에는 이와 같이 失活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도 失活 그 자체는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로 ‘乙(jĕt)’ 혹은 ‘便(b ĭän)’이라는 접두사·접미사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현상이야말로 실활부의 분할에 의해 생겨난 大失活部·小失活部の 명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이유는 물론 本支가 2部로 나누어진 관계로 의미상으로 본 推察이 있고 아울러 음성으로 이해한 해석이 뒷받침한다. 즉 失活(Siĕt-ɣuat)의 본래 의미<sup>46)</sup>는 잠시 불문에 부치고 이것이 첨가

46) 失活部の 원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강하게 상상하자면 몽골어 동사 sigükü:

된 접두어 ‘乙(jēt, 중세음) - i(현대음)는 몽골어 형용사 yeke, yike; grand, aîné; suprême에 해당하며, 접미어 ‘便(biān) - p(ien(현대음)은 동일한 bičihan; peu, petit, petit enfant의 對音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상 당연히 그래야 할 大失活·小失活의 구별이 음성상으로도 異議 없이 증명되는 것은 이 說로서는 무엇보다 큰 뒷받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해서 말하면 실활씨족의 주장이며 또 이성 키타이=牛 플랫폼리(Šarmut, 審密키타이)의 수령인 굴가는 나누어진 실활부의 반쪽을 이끌고 송막부의 本部(바꾸어 말하면 이성 키타이의 본부)로 삼고 따라서 이것을 그 諸子의 의 자손에게 전함과 동시에, 나누어진 실활부의 다른 절반을 동생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7부와 나란히 송막부 관하의 1주를 형성하였다. 전자가 을실혁부 대주이고 후자가 析紇便部 탄한주이다. 이 점에서 전자는 같은 실활부의 分部라고 해도 長上者에 속하고 후자는 卑幼者에 해당하기 때문에<sup>47)</sup> 역시 전자가 을실혁(Yike Sigü) 즉 ‘長上者 sigühü部’=大

---

discuter, examiner, preuzisitionner, juger, oter의 여러 의미 안에서 prendre les poissons avec un filet 즉 漁撈의 한 방법으로서 網漁에 관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동치던 선대 이래, 潢水·土河의 땅에 거주하던 그들은 미발달한 목축을 어로에 의해 보충하였지만, 혹은 더 前代에 그들이 수렵·어로를 경영하였던 시대의 생업의 특색에 의해 쓰여져 칭한 것일지도 모른다. 『구당서』, 『신당서』 거란전에는 키타이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는데, ‘逐獵往來, 居無常處’ 라고 하여 그 생계를 수렵에 힘입은 다음 순서로 언급하였다. 수렵경영이 지나는 불안정은 일찍이 가축의 사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 흑룡강 퉁구스족의 순록 사육 참고 - 키타이의 선대도 순수 수렵시대에서 목축시대로 진화하였다는 도식적 단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半獵(半漁) 半牧의 생활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토LEM이 나타난 牛·馬가 그 증거인데, 대개 수렵시대 제도에서 갈라져나온 토LEM만큼 안에서 목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牛·馬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동사 sigükü의 어근은 -hu를 붙여 작성된 형용사 sigühü ‘網漁를 하는 ‘사람들’로, 실활의 음성이 가깝다고 하여 이를 원어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론을 나아가게 한다는 편의에서 실활부를 가상으로 ‘sigühü부’로 번역하기로 한 것이다.

47) 혹은 씨족이 분열하여 형제씨족이 완성된 모양의 실제 사례일 뿐이며, 이 경우 보통 형제씨족이 새롭게 씨족명을 채용하여 동생씨족이 재래의 씨족명칭을 유지하

sigühü部를 칭하고, 후자가 석흘편(Sigü bičihan) 즉 ‘sigühü의 小子’=小 sigühü部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결과를 요약하여 송막도독부를 이끈 이성 키타이의 내 부조직을 1府, 10州, 8部로 해석하였던 것인데,<sup>48)</sup> 여러 학설과 나란히 이를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신당서』 거란전	『신당서』 지리지	『책부원구』	田村博士設
松漠都督府	松漠府	松漠府	松漠府(紇便部)
峭落州(達稽部)	峭落州(達稽)	峭落州(達稽部)	峭落州(達稽部)
彈汗州(紇便部)		彈汗州(析紇部)	彈汗州(紇便部)
無逢州(獨活部)	無逢州(獨活)	無逢州(獨活部)	無逢州(獨活部)
羽陵州(芬間部)	羽陵州(芬間)	羽陵州(芬間部)	羽陵州(芬間部)
日連州(突便部)	日連州(突便)	日連州(突便部)	日連州(突便部)
徙河州(芮奚部)	徙河州(芮奚)	徙河州(芮奚部)	徙河州(芮奚部)
萬丹州(墜斤部)	萬丹州(墜斤)	萬丹州(墜斤部)	萬丹州(墜斤部)
匹黎州 赤山州 (伏部)	匹黎州 赤山州 (伏部)	疋黎州 赤山州 (伏部)	匹黎州 赤山州 (伏部)
10주(1부9주)8부	9주(1부8주)7부	10주(1부9주)8부	10주(1부9주)8부
本論의 결론			
松漠都督府	本部	帶州(乙失革部)	
		峭落州(達稽部)	
		彈汗州(析紇便部)	
	別部	無逢州(獨活部)	
		羽陵州(芬間部)	
		日連州(突便部)	
		徙河州(芮奚部)	

는 것이다. 阻午可汗에 의하면 審密계의 두 씨족(收里·乙室)·耶律계의 세 씨족(迭剌·品·突舉)이 8개 복합 씨족이 재편성된 경우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48) 대sigühü부(을실혁부)와 소sigühü부(석흘편부)를 하나로 계산하였다.

	萬丹州(墜斤部)
	匹黎州(伏部) 赤山州
1부10주8부(大·小sigühü部를 하나로 계산)	

sigühü부의 本支가 2部로 분열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田村이 추정한 것과 같이 나도 이 분열이 이글가 시대로 본다. 왜냐하면 이글가의 손자인 고막리가 탄한주자사 즉 소sigühü = 析紇便部の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2부로의 분열이 시간이 오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이 분열이 더 오래된 시대의 소산이었다면 양자는 이미 별개의 씨족으로 각각의 氏族祖로의 결속을 강화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대sigühü부 = 을실혁부의 성원인 枯莫離가 다른 씨족인 소sigühü부의 수장이 되는 것 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sigühü부와 소sigühü부<sup>49)</sup>는 시간이 지남에 점차 각각 독자성을 확보하여 遼代 키타이인의 전승에서는 乙室(活)·收里(=失活)로 대칭될 정도로 개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한주자사가 된 고막리의 사례로 고찰하여 대·소sigühü부로의 분열이 그 시대에서 멀지 않은 때였다고 한다면 그 하한은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이글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가 있다. 즉 소sigühü부 = 실활부의 수령인 이실활은 이글가의 손자에 해당하는 이진충과는 輩行이 같은 형제관계이면서 이글가와와는 이미 祖·孫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거한다. 말하자면 이실활의 조부는 가장 近親의 관계를 상정해

49) 그러나 소sigühü부=석흘편부는 한편으로 대sigühü부가 유력집단으로 발전하여 乙失革·乙失活·乙室活의 이름을 고정하였음에 따라 특히 소sigühü부를 칭하는 것과의 구별을 볼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단순히 sigühü부=失活·獨活·實活이라고만 칭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도 이굴가의 형제밖에 될 수 없으므로 대·소sigühü부의 분열은 그 하한을 최소한 이굴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소sigühü부로 분열된 사정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적든 간에 다른 7씨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적인 필요가 그 동기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미주에 대한 당의 감독지배가 당연히 회고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키타이족에 대해 그 유력한 집단의 수령(손성 키타이 지도자로 지목되는 內稽部の 孫敖曹와 이성 키타이의 수령인 이굴가를 예로 들 수 있다)이 그 지배세력권인 집단에서 분리되어 영주도독부 관하에 설치된 사례들을 보아 왔다. 키타이족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집단인 이성 키타이=牛 플랫폼리의 수령 이굴가는 정관 22년 당으로 내속함과 동시에 송막도독이라는 전혀 새로운 권위를 수여받는 대신에 本族 집단에서 분리되어 영주도독 감독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당의 관직을 받은 이상 통제하는 관료체제의 일환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실의 急務로서 이굴가는 자신의 직할집단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집단의 기초가 혈연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던 당시의 키타이족으로서는 새롭게 편성해야 할 이 집단도 또한 스스로 같은 성격의 집단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씨족의 분할 특히 이굴가 자신이 소속된 씨족의 本支가 2部로 분열되어 하나는 이굴가에게 이끌려 영주도독 관하에 帶州·乙失革部=대sigühü부를 세우고, 다른 하나는 本族 플랫폼리 사이에 남아 탄한주·석흘편부=소sigühü부로서 송막부의 1주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이성 키타이 사회 내부에서의 큰 변화는 이굴가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生起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태였다. 그리하여 대sigühü부는 송막도독 이굴가가 직할하는 本

部가 되고 소sigühü부는 그 동생(혹은 族弟)에 해당하는 이실활의 조부에게 맡겨진 모양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해 그러한 가까운 시대의 씨족분열이었다고 한다면, 을실혁부 = 대sigühü부와 석흘편부 = 소sigühü부를 각각 세면 9부도 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를 하나로 세어 8부 이성 키타이로 自稱하고 또 그와 같이 他稱되기도 한 것이다.

이성 키타이가 플랫폼리로서의 통합성이 있어 송막도독부의 8부10주로 편성되었던 것에 비하면 손성 키타이는 不 통일성이 눈에 띈다. 물론 손성 키타이에 있어서도 플랫폼리는 나름대로 기능하였을 것이지만, 이성 키타이와 비교하면 특히 말해지는 것은 정치적인 통합에서의 차이이다. 겨우 遼州總管(즉 都督의 전신)에 임명된 손오조와 그 주위에 약간 그럴듯한 결속이 싹트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손성 키타이와 이성 키타이의 이러한 차이는 본래적인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생각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간격이 그 후 양자 사이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 왕조와의 관계(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치적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다)에 귀착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절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통일성이 부족하지만 그 내부조직을 일단 관찰해 보기로 한다.

손성 키타이의 내용이라도 해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다만 송막도독부 계통의 10주8부를 제외한 이외가 모두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문헌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배열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소극적인 탐구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서 拾遺한 바를 일괄하면 손성 키타이는 대체로 다음 표와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이 된다.



遼州=威州	貞觀元年 이후	內稽部
昌州	정관 2년 설치	松漠部落
沃州	載初中析昌州置	松漠部落
師州	정관 3년 설치	契丹室韋部落
玄州	정관 22년 설치	辱紇州曲據部落
靑山州	景雲元年析玄州置	辱紇州曲據部落

이들 기미주 = 씨족집단을 횡으로 연결하는 기초집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플랫폼리얼 것이지만, 그것이 이성 키타이와 같이 정연한 정치적 통일체(=송막도독부의 10주 8부)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또 단지 대하씨 키타이=이성 키타이에 필적하는 듯한 통괄적으로 命名된 것도 없었던 것은 후대에 손성 키타이의 중요한 역사적 활동을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아무튼 그 사이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무한 만큼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예컨대 昌州·沃州를 구성하는 松漠部落과 師州의 基體가 된 거란실위부락과 같이 과연 그것이 씨족집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의문이라면 의문이고 창주가 옥주를, 玄州가 靑山州를 분리시킨 사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부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정치적 요구에서 야기된 것인지 등 일체의 의문에 대해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일단 이 6州4部の 형태로 손성 키타이의 가상[假] 내용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당대 키타이족을 양분하였던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 중에서 전자는 대sigühü부 = 을실혁부의 수령인 이굴가에게 이끌려 송막도독부의 10주8부로 정연한 편성된 것에 대해 후자에는 그러한 통일적 형식이 없었다. 문헌에 보이는 한 그들의 내용은 6주4부이고, 그 사이에 겨우 內稽氏族의 수령이 그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점하는 듯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집단별로 자립성이 강했다. 당시에 키타이족 사회를 史實

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실증해 보면 이 결과는 타당하다. 즉 내가 이 책의 제1편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키타이부족제 사회의 도식, 즉 馬 플랫트리(Jala-ga, 耶律)와 牛 플랫트리(Šar-mut, 審密)의 兩班으로 구성된 이분체제 사회에 합치한다. 따라서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라는 두 집단은 이 牛 플랫트리와 馬 플랫트리의 각각에 대응하는 사회집단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내릴 단계에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의 논증에서 이미 그 一端은 밝혀진 것처럼 을실혁부=대sigühü부와 석홀편부=소sigühü부를 중심으로 한 이성 키타이야말로 틀림없는 牛 플랫트리(審密)이고, 따라서 내계부 이하의 손성 키타이가 馬 플랫트리(耶律)에 다름 아닌 것이다.

### III. 大賀氏 키타이

隋代부터 점차 그 미세한 움직임이 문헌상에 보이기 시작한 키타이족의 두 플랫트리는 그것이 당연한 추이이지만 唐代에 들어서도 그 초기에는 각별히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미개 공동사회에서의 평등 원칙은 이 두 플랫트리 사이에도 존재하였고<sup>50)</sup> 聲望·권위·지위·권한 등에 대한 甲乙은 개인 간에 없었을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대세에 일대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당의 기미주 제도, 그 중에서도 송막도독부의 설치였다. 주는 현을 통할하면서 동시에 보다 상위의 관부인 도독부에 예속되었다. 관료조직의 본질인 상하관계와 국가권력의 대행기관으로서의

50) 성원의 다수 씨족과 소수씨족, 따라서 큰 플랫트리와 작은 플랫트리라는 차이는 있었다.

공권력이 기미주라 해서 전적으로 거절된 것은 아니다. 기미주의 자사가 部民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송막도독은 이들 기미주의 자사에게 호령하였다. 물론 뿌리 깊은 공동사회의 자치원칙이 이 기미주 설치와 함께 일거에 붕괴되지는 않지만, 이를 계기로 새롭게 하나의 권위가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 당 왕조의 實力的 보증을 배경으로 하는 이 권위는 씨족원에게는 본래 완전히 외래의 객이었지만, 매사에 휘두르는 공권력의 행사<sup>51)</sup>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순간에 이 외래의 객에게도 정식의 자리 그것도 최상급의 자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씨족의, 그리고 또 플랫트리의 수령은 단순한 屬主(nügüčekü) '親屬者'이며 莫賀弗(bayatur) '勇者'에 지나지 않았다. 성원에 의해 선출되고 또한 성원에 의해 파면된 그들에게는 部民을 지배한다는 권한은 조금도 부여되지 않았다. 단지 대외관계의 긴장에서 발생한 씨족·플랫트리의 위기에는 屬主·莫賀弗에게 집단통솔의 임무가 위임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임시적이었다. 요컨대 거기에서는 개인의 집합인 씨족만이 성원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미주의 설치는 재래의 이러한 인간관계에 균열을 가져왔다. 씨족의 수장 등이 자사로 임명되고 플랫트리의 수령이 도독에 배수되자 그들을 선출하고 파면시킨 권능은 이미 씨족·플랫트리에서 남아있지 않았다. 당 왕조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다. 당 왕조에 의해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사와 도독은 이제 마침내 부민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씨족·플랫트리 내부에서 생긴 이 변화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매우 중대한 것이지만, 그것에도 뒤지지 않는 큰 변화가 두 플랫트리 사이에 발생하였다. 즉 그것은 일률적으로 기미주 자사에 임명된 씨족 수령 가운데 乙失革氏族團의 수장인 이글가만이 이성 키타이의 통솔자 자격으로 송막도

51) 오히려 공권력을 휘두르도록 당이 강요했을 것이다.

독에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도독은 자사를 통할하는 직접의 상사였다. 송막도독 이굴가는 도독부 관하의 9주 자사를 지배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 자사 아래 통제된 이성 키타이의 8씨족 집단은 더 나아가 도독 이굴가를 정점으로 하는 보다 고차원의 두번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면 그것은 ‘정치적 통일체’라고 하는 最低概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 될 것이다.

이성 키타이의 이와 같은 異常한 결집력에 비하면 손성 키타이의 상황은 많은 손색이 없을 수 없었다. 자사에 임명된 씨족장의 씨족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이론상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씨족들을 보다 상위 집단으로 응집시키는 단계가 손성 키타이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서로 대등한 등급의 자사를 받드는 씨족집단들은 특수한 사정에 처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연합하고 한 명의 지휘자의 명령에도 복종하였을 것이지만, 평등한 상태로 돌아옴과 동시에 상하를 관통하는 통속관계는 없어졌다. 도독부라는 상설의 統御機關이 없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성 키타이와 손성 키타이 사이에 名望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사실은 이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플랫폼리는 원래 결합도가 극히 느슨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이다. 부족과 씨족의 중간에 개재하는 結節이라고는 해도 혈연집단이라는 본질에서 보면 씨족과 같은 차원의 것이고 따라서 부족과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플랫폼리가 이성 키타이에서만 변칙적으로 ‘정치적 통일체’라는 부족의 本領을 발현한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연히 이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특이한 현상도 원인을 찾아보면 이 또한 기미주 설치에 수반된 결과였다는 것은 손성 키타이의 경우와 대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보았듯이 도독부가 설치되지 않았던 손성 키타이에서는 플랫폼리가 그 本分을 지켜 결코 ‘정치적 통일체’라는 부족의 본령을 침범하지 않았고 또 침범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성 키타이 즉 牛 플랫폼리(Šar-mut, 審密)는 部族에도 준하는 ‘정치적 통일 집단’이 추진된 반면, 손성 키타이 즉 馬 플랫폼리(Jala-ga, 耶律)의 경우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연유가 실은 다름 아닌 송막도독이라는 관직에 具象된 권위의 유무에 있었던 것이다. 당대 초기의 키타이 종족 사이에 전자가 주도적 지위를, 후자가 종속적 입장을 각각 취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 왕조와의 親近關係가 그러한 권위의 원천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높게 과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크게 선전되는 것이 도리이다. 송막도독부에 임명된 이성 키타이가

거란은 ……그 군장의 성이 大賀氏인데, 勝兵이 4만 3천인이고 8部로 나뉘었다.<sup>52)</sup> …(『구당서』 거란전)<sup>53)</sup>

라고 보이듯이 스스로를 대하씨라고 칭하였고, 따라서 또 ‘大賀氏 거란’·‘大賀氏 八部’라는 명칭이 마치 당시의 모든 키타이족과 동의어인 된 듯 사용된 사정도 또한 저절로 이해될 것이다. 대하씨는 중세음 *djai-γa*로 비추어도 알 수 있는데, 즉 몽골어 동사 *takihu*: donner destémoignages soumission, derespect, de vénération, d’estime의 행동사 과거형 *takigā* ‘복종의 정성을 나타낸 (사람들)’을 轉寫한 듯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52) [역자주] 『구당서』 권199, 거란전, 5349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 역주』 下, 671~672쪽.

53) 『구당서』·『신당서』 거란전 모두에 大賀氏 8部라고 한다. 다만 『신당서』의 이 기사는 前代 이래 키타이종족을 總敍하는 중에 서술되었는데, 이 점은 후 당대 이전의 호칭인 듯한 느낌을 가지게도 한다. 하지만 ‘分爲八部’라는 그 내부 편성은 松漠都督府 소속의 키타이, 바꾸어 말하면 이성 키타이에 있어서만 명확히 들어맞는 것이고, 사실 그 후의 사용 사례에 비추어도 대하씨 거란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당대 초기의 이성 키타이를 지칭하여 사용되었다.

것은 당으로의 귀부[款付]에 의해 얻은 권위에 만족하고 이를 과시한 自稱이었지만, 이윽고 그것이 비굴하게 외국에 굴종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 모욕의 어감을 가지게 된 것에 키타이족 발전의 일대 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성 키타이 특히 그 수령 등은 ‘대하씨(takigā)’ 즉 ‘당 왕조에 臣服한 者’를 자임하며 自尊으로 삼은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그 자존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은혜를 입었다. 초대 송막도독인 이굴가를 이어 李阿卜固에서부터 이진충으로 즉 이굴가의 아들에서 손자까지 계승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특권을 보증받은 특정한 종족이 공동체 안에서 상승하여 유리되어 간 전형적인 모습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키타이족에서 공동사회의 분해는 이와 같이 오로지 당과의 정치관계로 의해 촉진되었다. 키타이종족을 자극하여 하나로 만들 통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적어도 그 半을 접하는 審密 플랫폼의 내부통제는 그러한 발생과정을 가진 특권 종족을 중심으로 그만큼 강해져 왔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권위를 부여한 당 왕조는 그 반대급부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구속을 점차 강화하였다. 내부결속의 강화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당 왕조의 속박 증대라는 이 두 가지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 초대 도독송막 이굴가는

[영휘 5년(654) 10월] 高麗가 그 장수 安固를 파견하여 高麗·靺鞨兵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자, 송막도독 이굴가가 그것을 막고 高麗를 新城에서 대패시켰다.<sup>54)</sup>

라고 하듯이 당의 藩屏으로서 고구려 방어에 기여이 헌신하였지만, 제2대

54) 『자치통감』 권199, 永徽 5년 10월 조, 6286쪽.

도독 阿卜固의 시대가 되면 점차 당의 사역을 수궁하지 않게 된다. 즉 『자치통감』 권200, 고종 顯慶 5년(660) 5월 조를 보면

定壤都督 阿史德樞賓과 左武候將軍 延陀梯眞과 居延州都督 李合珠를 冷岍道行軍總管에 임명하여 [胡三省 주: 즉 冷徑山이다. 奚와 거란은 이 산에 의거하여 自固하였는데, 그 땅은 潢水의 남쪽, 黃龍의 북쪽에 있다] 각각 관하 병사를 이끌고 叛奚를 토벌하게 하고 …… 다시 樞賓 등을 沙磧道行軍總管에 임명하여 거란을 토벌하게 하니 거란 송막도독 아복고를 사로잡아 東都로 보냈다(6320쪽).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 알력은 제3대 도독 이진충에 이르러 그 키타이족의 대반란이 되지만, 1대에서 다음 1대로 옮겨가면서 그 독립의식이 강렬해지고 저항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키타이족 사회의 끊임없는 생장 및 임시적인 씨족의 연합이라는 오래된 군사조직으로부터 항구적인 정치통일이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진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